



3면

'모두의 경제포럼' 창립식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음 10월 15일) 제2904호

대표전화 (063) 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수능 끝' ... 가벼워진 발걸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 '공공행사 개최 자제해달라'

전북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따라  
한자발생·위중증환자수 등 방역지표 '적신호'  
불가피한 행사 개최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해야

전북도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사람간 접촉을 줄이고자 공공 부문 행사부터 자제로 권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지 보름이 넘어가면서 모임·만남 증가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는 적신호를 보이며, 방역당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오전 7시 기준 전북도 병상가동률은 58%, 주간(이달 11~17일) 총 환자 발생은 364명, 1일 평균 확진자 발생은 52명이다.  
이전 주간(이달 4~10일) 환자 발생 180명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계획)하는 지역축제, 각종 기념행사, 강연 대회 등 공공부 분 행사부터 자제해 사람간 접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부문도 해당 분야 관련부서를 통해 행사규모 최소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의심나 면 검사받기 등 더욱 철저히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일상회복 단계에서도 사람간 접촉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며 "도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방역의료 역량의 부담을 줄여, 결국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 전국 댐 하류 수해피해 5개 광역지자체 "전액 국비 배상 신속히 이뤄져야"

전북도, 전남·충남·충북·경남도 등과 건의문 제출  
도내서 남원·순창·임실·진안·무주 등 799억 피해  
송하진 도지사 "수해민 일상복귀 위해 정부 차원 배상"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등 전국 댐 하류 수해 5개 도가 청와대와 정부에 신속한 전액 국비 배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북도가 18일 전남도와 충청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도에서 작년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국비 전액 배상을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

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에 전국적으로 3,757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8,4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5개 시·군에서 799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2,2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 8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통해 국가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피

해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수해의 원인을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부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 등 수해 지역 5개 도는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과 예비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시기조절의 실패가 작년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미흡한 댐 운영과 급격한 댐 방류로 지자체는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홍수가 발생했으므로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전액 배상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

뤄지지 않고 있어 수해민들의 지속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국비 배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에서 기관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관별로 배상을 나눌 경우, 기관별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 지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해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라며 국가 전액 배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유호상 기자



10월의 전북을 빛낸 '새만금수질개선포와' 관광총괄과, '해양항만과'가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받았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10월을 빛내다'

도, 새만금수질개선포와 등 3개 부서 으뜸도정상 시상

2021년 10월의 전북을 빛낸 '새만금수질개선포와'와 '관광총괄과', '해양항만과'가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받았다. 도는 18일 조봉업 행정부처장 업무성과가 탁월한 3개 부서장에게 으뜸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부서에 새만금수질개선포와, 우수부서에 관광총괄과, 해양항만과가 선정됐다.  
특히, 새만금수질개선포와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국비 481억 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 악취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총괄과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며, 국비 22억5천만 원을 확보해 관광 환경을 개선,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해양항만과는 전국 244개소 해수욕장 중 변산해수욕장이 방역관리 등 평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유호상 기자

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새만금수질개선포와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국비 481억 원을 지원받아 수질오염, 악취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총괄과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며, 국비 22억5천만 원을 확보해 관광 환경을 개선, 미래 관광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해양항만과는 전국 244개소 해수욕장 중 변산해수욕장이 방역관리 등 평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뒀다. /유호상 기자

##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노력 '눈길'

도, 공공분야 성인지 역량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마련

전북도가 공공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정책 체계 구축 및 실행력 강화, ▲성불균형 조직문화개선,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전북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도 전부개정해 조직 내 성희롱 방지 강화와 도지사의 책무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도 명시했다.  
또한 전북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테스트에 직원 1,200여 명이 이상이 참여했다.  
성인지 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

해서 도와 시·군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성평등 정책포럼, 포스터 전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목표 수립 관리운영, 각종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 추진, 고층 상담 창구 운영, 성평등 기금사업 추진, 성평등 채용안 내서 발간비보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바람따라  
완주따라

2021-2022  
방문의 해